

계하고 있으므로 高山이나 密閉室內의 작업시는 산소분압이 낮아서 중독이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體內的 산소의 수요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高溫場所에서 작업하거나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농도의 CO를 흡입하여도 중독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 溶鑛爐 작업자의 중독에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 分壓關係를 뒤집어 말하자면 이것은 CO가 빨리 체내에서 도망간다는 이야기도 된다. 한번 CO와 결합한 血色素라도 CO가 없는 공기중에 나가면 곧 解離되어 다시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을 회복한다.

즉 죽기 직전까지 간 중증환자라도 1~2일 후에는 혈액중에 CO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일

을 다하고 CO는 도망쳐 버리는 것이다.

CO중독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도 중독환자가 사망하였을시 剖檢을 한다는 것이 病理學的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交通巡警의 경우 차량의 배기가스로 저농도의 CO반복중독의 가능성이 있는데 부검예가 없어서 사실의 규명이 어려우며 동물실험으로서 추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동물과 인체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三池炭鑛爆發事故症例에서 CO중독은 강열한 腦損傷을 가져와 회복되지 않는 後遺症을 남긴 예를 보고있다. '그리고 이 발생기전은 CO血色素症에 의한 低酸素症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고 당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계속)

◎ 협회소식 ◎

**85년도특수검진기관  
종합평가회의개최**

○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특수건강진단기술협회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30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난 11.25-12.3에 걸쳐 실시되어 이에 대한 종합평가회의가 12월13일 30개 검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금번 실사는 검진기관들의
  - － 인력, 시설, 기계 기준 상태
  - － 지역책임검진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역할 수행여부
  - － 전문기관으로서의 기술적 능력(검진 및 환경측정)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8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도 아울러 조사되었다.

○ 종합평가회의의 결과 대체로 시설, 인력, 기계 등은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아니고 필요시 차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특수검진사업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아직도 관할지역내 특수검진대상사업장 파악 미흡, 홍보부재, 2차 정밀검진미실시등 지역책임제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특수검진실시에 앞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사업장 및 부서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이 이와는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관할내 새로운 유해사업장을 발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따라 동회의에 참석한 검진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중 자체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율적 개선토록 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및 행정지도, 관계규정 보완을 통한 산업보건사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여 86년도 산업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기로 결의하였다.

## 전국 사무국장회의 개최

○ 85년도 연간사업실적을 종합평가하고 86년도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국 사무국장회의가 85.12.19. 13:00-20:00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85년도 실적평가에 있어서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장 도산, 근로자 감축과 사업주의 검진기피현상이 주된 부진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검진의 경우 당협회에서는 검진수가 덤핑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 검진기관들 간에는 난립으로 인한 심한 경쟁과 덤핑행위로 검진의료 질서를 악화시키고 검진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전국 사무국장들은 이러한 일반검진기관들과의 난립경쟁을 피하고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의 근로자 검진업무에 정진하기 위해 86년도 사업추진은 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사업장 보건관리대행등 협회의 전문성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지부별로 지역특성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 산업보건센타소장 회의

○ 당협회 제 1회 산업보건센타소장회의가 12.13일 조 규상 회장 주재하에 개최되어 센타운 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 ◎안 내◎

# 국 제 학 회 안 내

☒ 제 22 차 국 제 산 업 보 건 학 회 ☒

일 시 : 1987년 9월 27일 - 10월 2일

장 소 : 오스트라리아, 시도니시

제 1 차 안내가 도착하여 있으니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보건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회의는 일선 센타소장들의 어려움과 요망사항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는 바 대부분이 간부직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으며 적정인력재조정, 직원들의 자질향상책, 사업운영방안등이 허심탄회하게 토의되었다.

○ 특히 조 규상 회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맡고 있는 우리는 전문인으로서 사회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 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 개선방안검토 회의개최

○ 노동부는 현행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제도에 상에 일부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85.12.20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학계, 관련단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반건강진단기관등 전문가 16명을 초청,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 토의의 주요내용은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재조정, 건강진단 기간, X-선 필름 크기 및 판독방법, 진단수가 결정방안 등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대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건강진단제도와 비교 검토되어 86년도 부터 부분적 개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